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 김영훈 장관, 청년 200명과 함께 ‘일과 삶’을 주제로 진솔한 대화 나눠
- 하림, 임홍택, 배운슬, 황효진 등 다양한 노동 형태의 패널 참여...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대처, 변하지 않는 노동의 가치 공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0일(목) 저녁 7시, 서울 마포구 소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청년 200여 명과 함께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일과 삶을 이야기하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5월 1일 노동절을 축하하며, 전야제 형식으로 마련됐다.

임홍택 작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는 가수 하림, 청년도배사 배운슬, 프리랜서 황효진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했다. 특히 김영훈 장관이 직접 무대에 올라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꿈꾸는 기관사, 노동자 출신’ 장관으로서 소회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1부에서는 ‘우리는 왜 힘들까?’를 주제로 번아웃과 관계 스트레스 등 직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AI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부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를 통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과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가수 하림의 공연이 이어지며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쉼표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접수된 질문과 온라인 QR코드를 통한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이 가감 없이 공유되었다. “조직 내 개인주의와 인간관계에서 혼란스럽다”, “AI 시대에 내 직무가 대체될까 두렵다”라는 청년

들의 목소리에 대해, 김 장관은 본인의 과거 철도 기관사 시절 경험 등을 언급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노동자’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김 장관은 “정답이 없는 시대에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속도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청년 여러분의 모든 노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소중한 땀방울 덕분에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며 청년들을 격려했다.

또한 노동절 명칭 변경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 ‘근로자의 날’이 특정 집단에 한정된 날의 의미였다면, ‘노동절’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기리는 날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며 이번 행사도 이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으로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된 공무원·교원 등을 언급하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하는 날이 되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붙임 1. 2026년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 행사 개요
- 2. 2026년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 포스터

| | | | | |
|-------|--------------------|-----|------------|--|
| 담당 부서 |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박은경 (044-202-7587) |
| | | 담당자 | 사무관 주무관 | 이병렬 (044-202-7596) 김미연 (044-202-7593) |



□ **[일시 · 장소]** '26. 4. 30.(목) 19:00 ~ 21:00, 구름아래소극장*

*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9가길 15 (홍대입구역 인근)

□ **[참석자]** 200명 내외(사전 모집자, 그 외 대학생 및 퇴근길 직장인 등)

□ **[출연자]**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인사*(사회자 포함)

* 임홍택(작가), 하림(가수), 배윤슬(청년 도배사), 황효진(뉴그라운드 운영자)

□ **[주요 내용]** 객석 참석자와 패널 간 쌍방향 소통형 토크쇼 및 공연

- (주제)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❶일에 대한 불안과 고민, ❷직장 생활의 고충, ❸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현실 공감, ❹노동의 의미 상기·격려
- (진행) 패널별로 간단히 본인의 이력, 노동 경험 등을 소개하고, 세션별 소주제에 맞춰 참여자와 질의응답* 진행, 마무리 공연

* 참석자 사전 질문 및 현장 질문(온라인 QR코드 활용) 취합

□ **진행순서**

| 구분 | 시간 | | 주요내용 | 비고 |
|--------------|-------------|------|--|-------|
| 오프닝 | 19:00~19:10 | (10) | ▪ 오프닝 및 패널 소개 | 사회자 |
| 토크쇼 (세션1) | 19:10~20:00 | (50) | ▪ 질문에 대한 프리토킹 [소주제] ❶ 우리는 왜 힘들까? ❷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바뀌고 있나? | 전체 |
| 휴식 | 20:00~20:10 | (10) | 휴식 | |
| 토크쇼 (세션2) | 20:10~20:50 | (40) | ▪ 질문에 대한 프리토킹 [소주제] ❸ 우리가 일하는 이유? | |
| 공 연 | 20:50~21:00 | (10) | ▪ 공 연 | 가수 하림 |
| 클로징 | 21:00 | | ▪ 마무리 | 사회자 |



2026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

“일과 삶을 이야기하다”

2026. 04. 30. (목) 19:00 구름아래소극장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안과 고민, 직장 생활의 고충,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한 현실 공감을 바탕으로 서로의 마음을 꺼내보면서 일(노동)의 의미를 풀어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임홍택
작가

베스트셀러*90년생이 온다, 저자
대표민국 대표 세대 연구가 &
조직문화 전문가



배운슬

대한민국 청년 도배사

베스트셀러*청년 도배사 이야기, 저자
유 퀴즈 온 더 블럭 123회 출연



황효진

뉴그라운드 운영자

“일의 말들”,
기타만의 콘텐츠 만드는 법, 저자
건강하게 일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커뮤니티(뉴그라운드)
운영자



하림
가수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 위해
일을 합니다”, 저자
음악가, 문화기획자

- 오르막길
- 열대야의 뒷모습
-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 위해 일을 합니다
- 피아노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흔들리는 마음이지만,
오늘도 일을 이어갑니다.”

- 19:00~19:05 (5) 오프닝 멘트
- 19:05~19:10 (5) 간단한 패널 소개
- 19:10~19:50 (40) 1) 우리는 왜 힘들까?
2)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바뀌고 있나?
- 19:50~19:55 (5) 휴식시간
- 19:55~20:50 (55) 3) 우리가 일하는 이유
각자의 방식, 속도도 괜찮다
- 20:50~21:00 (10) 공연



사전신청 QR 코드